

서북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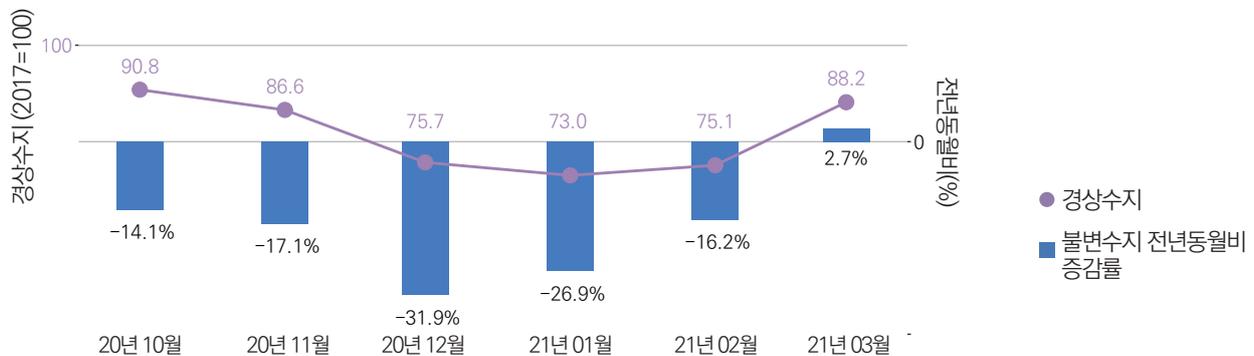
•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.7% 상승, 그러나 10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소비경기지수는 가장 낮은 수치를 지속

- 전년동월대비 -16.2% = 소매업의 기여도 -4.1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2.1%p
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[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](#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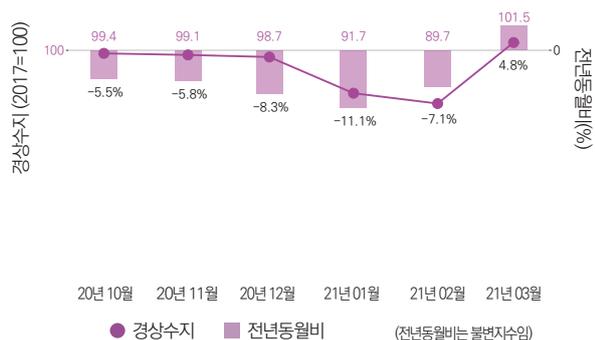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4.8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0.6% 하락

- 서북권은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복·섬유·신발(25.2%), 무점포소매(23.3%), 문화·오락·여가(13.7%), 기타상품(3.4%) 등 소매업 세부 업종 일부만 (전년동월대비) 증가. 3월 서북권의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했지만, 10개월 연속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서울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지속
 - 3월 서북권 소매업은 의복·섬유·신발, 무점포소매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상품 순으로 소비증가
 - 반면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음식료품, 기타가정용품, 연료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
- 서북권의 숙박·음식점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숙박(11.4%)만 (전년동월대비) 증가를 나타냈으며, 음식점(-0.3%)과 주점커피전문점(-4.3%)의 부진은 지속
 - 3월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만 소비증가. 반면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순으로 소비감소

| 서북권 소비경기지수



|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